

구분무 LG그룹 회장 별세 | LG그룹은 어디로?



구분무 LG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구 회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해 결실을 보는 '끈기와 결단의 리더십'으로 LG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1995년 2월22일 그룹 회장 취임식 2002년 10월 전기차배터리 개발을 위해 만든 시제품 테스트 2002년 5월 한 행사장에서 직원들과의 대화 2016년 LG 테크노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하는 등 구 회장은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쳤다.

뉴스시스

‘구광모 체제’ 전면에서…AI 등 미래산업 역점

〈LG전자 상무·구분무 회장 장자〉

장자승계…구분준 부회장 분리전망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급변 없을듯
자동차 전장·IoT·로봇 사업에 집중



구광모 상무

구분무 LG그룹 회장이 20일 향년 7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뇌종양을 발견해 수술을 받은 뒤 투병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됐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LG그룹 측은 “구 회장이 1년간 투병을 하는 가운데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평소 뜻에 따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23년 동안 그룹을 이끌며 LG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구 회장이 타계하면서 LG그룹은 4세 경영 시대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LG가 의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은 구 회장의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 B2B사업본부 사업부장(상무)에게 넘어오게 됐다. LG그룹 지주사인 (주)LG는 이미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6월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구 상무를 등기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주)LG는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후계 구도를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LG그룹은 향후 구 상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영 체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는 등 공을 들여온 자동차전장 사업이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금까지 전문 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4세 경영이 본격화하면서 구분준 LG 부회장의 차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계열분리 등을 통한 독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LG그룹은 그동안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

기 위해 형제와 형제 자손들이 계열 분리를 통해 독립했다. LS그룹과 LIG그룹이 그 사례다. LIG그룹은 구인회 LG 창업주의 동생 구철희 명예회장 자손들이 독립해 만들었다. LS그룹은 여섯 형제 중 4남, 5남, 6남인 구태희, 구평희, 구두희 형제가 2003년 계열분리를 통해 탄생했다. 창업 과정부터 함께한 구 씨와 허 씨의 동업도 계열분리를 통해 2005년 막을 내렸다. 제조업 계열사를 구 씨 가문의 LG가, 유통 서비스 부문을 허 씨 가문의 GS가 나눠서 분리했다. 재계에서는 구 부회장이 소유한 LG 지분을 일부 계열사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 개명 주인공…글로벌 LG로 이끌어

고 구분무 회장이 걸어온 길

고 구분무 LG그룹 회장은 1995년 그룹 회장을 맡은 이래 LG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불린다. 럭키 금성을 글로벌 시장에 맞게 LG라는 이름으로 탄생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연세대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해 애슬랜드대학과 클리블랜드주립대 대학원에서 각각 경영학을 전공한 뒤 귀국, 1975년 (주)럭키에 입사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럭키와 금성사의 기획조정실 등 그룹 내 주요



고 구분무 LG그룹 회장

회사의 영업, 심사, 수출, 기획업무 등을 두루 섭렵하며 다양한 실무 경력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 핵심 사업인 전기·전자와 화학 사업은 물론 통신서비스,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 분야에 적극 진출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거듭했다.

LG그룹 매출은 GS, LS, LIG, LF 등을 계열 분리하고도 30조원대(1994년 말)에서 지난해 160조원대로 5배 이상, 해외 매출은 약 10조원에서 약 110조원

故 구분무 LG그룹 회장 주요 연보	
1945. 2. 10. ▶ 경남 진주시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출생	2003 ▶ LG 국내 대기업 최초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지주회사 (주)LG 출범
1972 ▶ 미국 애슬랜드 대학교 경영학 학사	2006 ▶ LG디스플레이,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준공
1974 ▶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9 ▶ LG전자 서초 R&D 캠퍼스 준공
1975 ▶ LG화학 심사과장	2010 ▶ 유무선 통합 통신사 LG유플러스 출범
1981 ▶ LG전자 이사	2015 ▶ LG복지재단 대표이사 취임, 'LG 의인상' 제정
1989 ▶ LG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2016 ▶ LG연암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연암학원 이사장 취임
1995 ▶ LG 제3대 회장 취임, LG프로야구구단 구단주	2018 ▶ 국내 최대 규모 융복합 연구단지 LG사이언스파크 개관
1997 ▶ LG상록재단 설립, 이사장 취임	

으로 10배 이상 신장했다. 이는 5~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과감히 일을 추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해 결실

을 보는 구 회장의 ‘끈기와 결단의 리더십’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4~18일

코스피지수	2460.65	↓	-17.06
코스닥지수	869.45	↑	+3.52
日 닛케이 지수	2만2930.36	↑	+171.88
中 상하이 종합	3193.30	↑	+30.0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3	↓	-0.06
환율 (원·달러)	1082.00	↑	+15.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729.08	↓	-755.27

지수는 18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SKT vs KT “5G 이슈 선점하라”

이동통신 기업들이 내년 초 상용화 될 5G 이슈 선점에 나선다. SK텔레콤과 KT는 23일부터 나흘 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IT쇼 2018’에 참가해 5G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은 ‘5G 생활의 순간을 잡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먼저 5G 시대 교통 혁명 기반이 될 ‘HD맵’을 공개한다. 맵 제작 차량을 전시하고, 차량이 5G 망과 센서를 통해 다양한 사물 정보를 인식하는 모습을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한다. SK텔레콤은 또 ‘360 라이브 영상 전화’를 통해 예술작품 속 인물과 대화하는 체험공간 ‘5G 갤러리’도 마련한다. 그 밖에도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를 적용한 스마트홈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전용망을 이용한 혈당측정기, 블랙박스, 차량 트래커 등 AI 및 IoT 기술·서비스도 전시한다.

KT도 ‘5G 이룩하다’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꾸린다. 관람객들이 5G 단말을 통해 5G와 LTE의 속도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5G 홀로그램과 실시간 스포츠 중계 기술, 가상현실(VR)게임 등도 체험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AI TV ‘기가 지니’와 자율주행을 위한 플랫폼 ‘기가 드라이브’도 만나 볼 수 있다.

김명근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인맥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선택 시 “취업·개업까지 고려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에 상관없이 의식주의 기본 요소인 주택 거래에 대한 수요는 끝없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까지 현직 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이유다.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급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교육기관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2년 연속 공인중개사 합격자 죄다 배출’ 한국 공식 기록을 인증받은 종합교육 기업 에듀윌은 “교육기관을 고르는 것이 고민된다면 합격 이후까지 고려해보라”고 이야기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목표가 비단 시험 합격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시험 합격은 기본. 취업이든 개업이든 이를 활용하여 전문 직종을 갖는 것



실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합격 이후이다.

에듀윌의 경우 수많은 합격생 배출을 기반으로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를 조직했다. 전국 네트워크로 조직된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는 수시로 모임을 갖고,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부동산업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는다.

실제로 선배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사람을 중원할 때 에듀윌 인맥 북을 활용해 후배를 채용하기도 하며, 후배가 개업을 할 때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이 목표일 터. 교육 기관마다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강의 품질도 다르겠지만 교육기관마다 확

■ 스도쿠문제

		9	8		6	4		
		7					6	
	6		9		4		8	
7		3		6		2		1
			5		1			
1		8		2		6		5
	3		2		9		7	
	4						1	
		1	3		7	9		

6		3		7		1		4
				4		3		
4				8				3
	3			4			6	
2		7	9		6	4		8
	4			2			3	
3				5				6
			6		8			
5		4		9		7		1

■ 스도쿠정답

9	6	7	4	8	1	8	2	
2	1	8	9	8	9	7	6	
4	7	8	6	1	2	9	8	9
9	4	9	8	2	7	8	6	1
8	8	7	1	6	9	9	2	4
1	6	2	8	9	4	8	9	7
7	8	1	4	9	6	2	9	8
6	9	9	2	8	1	4	7	8
8	2	4	9	7	8	6	1	9
1	8	7	2	6	8	4	9	9
9	4	8	8	1	9	2	6	7
9	6	2	4	9	7	8	1	8
7	8	6	9	2	1	4	9	8
8	1	4	9	8	6	7	9	2
2	9	9	7	4	8	1	8	6
8	7	9	1	8	9	6	2	4
6	2	8	8	9	4	9	7	1
4	9	1	6	7	2	8	8	9